

“눈에 보이는 것이 본래 모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지안 스님 1강 - 금강경

21세기 현대인을 위한 열린 대강좌 2010 빛고을 불교아카데미가 10월 27일 시작됐다. '경전의 숲에서 단비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의 첫 법문에서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금강경>을 통해 집착을 여읜 것을 강조했다. 2010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 정보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계속된다. 다음은 지안 스님의 법문을 요약한 것이다.

24일까지 저녁마다 '경전의 숲에서 단비'

여러분과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광주에 이렇게 와서 대법회를 같이 하게 된 소감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 법회를 주선하신 광주지역에 계신 사암연합회 성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수행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불자님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회가 잘 유지되어서 지역 불교 발전의 큰 추동력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설해 놓은 경전, 즉 불경(佛經)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와 같이 경전 하나 하나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저처럼 평생 경전을 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앞으로 대사회적 역할 또는 불교가 중생을 일깨우는 그런 본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금강경은 어떤 경전인가?

오늘은 첫 시간.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경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은 조석예불 시에 필독하는 <반야심경>, 사찰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독송하는 <천수경>입니다. 이 경전들은 기도식용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강경>이 있습니다. <금강경>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또 조계종은 <금강경>을 유일하게 소의경전으로 종헌 상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선종에서 중국 오조 홍인 스님이나 육조 혜능 스님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경전이기도 합니다. 천도재를 지낼 때에도 <금강경>을 독송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불교 여러 경전보다도 가장 많이 불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경전이고, 친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은 반야부 경전을 대표하는 경전으로 600부 반야경 중 제577권에 해당하는 경입니다. <금강경>을 <반야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600부 반야경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경이 아가 말씀드린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그 중심 내용은 같습니다.

◇ 금강경의 내용과 중심사상

<금강경>은 그 대의가 중생이 잘못 가지는 집착을 없애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로부터 경전의 대의를 요약해서 여섯 자의 한자로 나타난 예가 있는데, <금강경>의 대의를 파이집(破執) 현삼공(顯三空)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집착을 부수고 세 가지 공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서 '금강'이라는 말은 중생의 번뇌를 깨뜨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견고하여 다른 것을 부술 수 있으면서도 다른 것에 의해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한역 6본 가운데 구마라집의 역본은 양 무제의 아들 소명(昭明) 태자가 전문을 32본으로 나누고 각 장과의 뜻을 연결시켰습니다. 여기에 세친(世親)의 27단과 무작의 18주는 예로부터 <금강경>을 깊이 이해하는데 표준이 돼 왔습니다. <금강경>은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와 부처님께서 문답을 나누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답이 전개되면서 수보리 존자가 마음 속으로 27번의 의심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27번의 의심을 풀어준다고 해서 세친 보살은 27단이라 했고, 무작 보살은 <금강경> 속에서 수행이 18단계로 나뉘어 이해가 가능하다고 해서 18주라고 했습니다.

<금강경>을 잘 이해한 무작과 세친, 두 형제가 논(論)을 지은 것이 유명합니다. 이름을 그냥 붙여서 형 무작이 지은 것은 <무작론>, 동생 세친(천진)이라고도 함이 지은 것은 <천진론>이라고 합니다. 유식불교에서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는 이 양론을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예로부터 말을 해왔 습니다.

경이 시작되는 '법회인유분'에서 수보리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질문을 합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何住)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降伏其心)합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수보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부처님 말씀이 계속 설해져 나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해준 내용을 네 가지 마음(四心)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광대심(廣大心)입니다. 종교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관을 진리에 맞도록 바꾼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인생관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택하면서 중생은 살아갑니다. 직업도 선택, 배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이 10월 27일 광주 KT정보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10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에서 <금강경>을 주제로 법문하고 있다.

공을 체득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리라
욕심을 풀어놓고
집착을 줄이면
삶이 수월해진다

우자도 선택, 인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생관의 선택이 잘 되면 따라서 다른 것도 선택이 잘되어집니다. 불교는 이런 선택의 문제를 좋은 인연으로 만나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 전부 내 마음의 중생 전체를 상대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은 상대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마음의 원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생 전부를 상대하는 마음을 광대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제일심(第一心)입니다. 일체 중생 모두를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나머지가 없는 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완전한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일체 중생을 고통이 없도록 해준다는 마음을 제일심이라고 합니다. 가장 으뜸가는 첫째가 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항심(恒心)입니다. <금강경>에 묘한 말

이 나옵니다. 중생이 무여열반에 들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로 무여열반에 든 중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시를 많이 해서 물질적으로 도움 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와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제도하기 전이나 제도한 후 마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음, 항상한 마음이라고 해서 상심이라고도 하고 항심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는 부전도심(不顛倒心)입니다. 뒤바뀌지 않는, 전도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중생이 야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 네 가지 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금강경> 대의에 입각해서 왜 깨달아야 하느냐를 설명해 보자면, 꿈을 알려면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꿈속에 있으면 꿈인 줄을 모릅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꿈꾸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나는 불교목적 나타내는 말이 바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니까"라는 수보리 존자의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위와 같은 "네 가지 마음(광대심, 제일심, 항심, 부전도심)을 가지고 살라"고 답했습니다.

<금강경>의 중요법문의 대의를 한 글자로 추려서 '공' 사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금강경>의 본문에는 공이라는 글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이 공을 설명하는 법문으로 공(空), 무상(無相), 무주(無

住)라고 합니다.

"범소유상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하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이면 즉견여래(卽見如來)니라." 이것이 <금강경> 사구제입니다. 무릇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의 모습은 이것이 '범소유상'입니다. 다 허망하다, 실체가 없다, 비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으로 보는 것이 나중에 나를 얻는 길입니다. 공으로 보지 못할 때는 반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현상의 모습이 모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나타나 있으니 모양을 모양이 아닌 것으로 보면 그 때 여래를 본다 것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유명한 <금강경> 사구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공(空)의 현대적 의미

<금강경>은 공을 통해서 현대인에게 아공(我空), 법공(法空), 석공(析空), 체공(體空)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무아(我空), 객관적으로 집착이 남아 있지 않는 법공과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나타난 임시적인 모습이므로 그 실체는 없다는 석공, 체험하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체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 나름의 업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업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일체중생이 전부 자기 업식 대로 보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다고 하면 색과 모양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사람을 사람이 본 경우와 소나, 말, 개 등 동물이 보는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눈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본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눈마다 다르게 보이는데 사람 눈에 보이는 색깔, 있기는 있지만 그게 불변된 고정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사물의 모습이나 색깔이 눈마다 다르게 보인다면 어디에 고정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고정된 모습, 고정된 색은 없다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을 알 때 마음이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공은 반야, 지혜를 이끌어내는 공이 됩니다. 공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공을 체득해서 사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욕심 좀 풀어놓고 살면 훨씬 살기가 편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집착을 줄이고 살면 삶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이 현대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역 불자님들께서 오늘 <금강경>의 이런 저런 내용을 들었으니 생활의 습관도 좋은 방향으로 바꾸시고 불경의 법문을 듣고 내 인생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정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대학 개교 기념 퇴마법(최면+기공+요가) 특강

강사 : 퇴마사 종산스님

스님과 중무직 재가불자님들께는 퇴마법 강좌를 등록하시면 나머지 강좌는 무료수강의 혜택을 드립니다.

- ◆ 3개월 수련 (주 1회), 월 30만원 / 일시불 80만원 (수강일정은 변경 가능합니다)
- ◆ 개 강 : 수요일 11월 17일 3시 / 토요일 11월 20일 3시
- ◆ 장 소 : 을지로4가 국도호텔 맞은편 5층 관음사 덕성불교대학
을지로 4가역 1번출구 : 전철 2,5호선
을지로 3가역 7번출구 : 전철 2,3호선
- * 수행공간 문제로 반별로 정원제한 예정입니다.
- * 다른 강좌는 본 강좌에 맞추어 순차 개강 예정입니다
- ◆ 연락처 : 02)2285-3004, 070-8688-7762, 011-271-7760

강 의 시 간 표

	오전반 (11~13시)	오후반 (15~17시)	저녁반 (19~21시)
월	주역점(서산스님)	의식초급(혜덕스님)	경전(혜덕스님)
화	육효(서산스님)	명리초급(신준철교수)	기문둔갑(신준철교수)
수	명반, 일진법(서산스님)	퇴마(종산스님)	
목	명리초급(혜덕스님)	의식중급(혜덕스님)	사월요법(혜덕스님)
금	타로(초빙교수)	성명학(교육원장)	전통침(자봉스님)
토	한문(무변스님)	퇴마(종산스님)	
일	타로(서산스님)	명리(서산스님)	육임(서산스님)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께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교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민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